

2017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2017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
목차

대상

-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워크넷과 함께

최우수상

-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우수상

-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우수상

-
워크넷을 통해 평생 함께 하고픈 회사를 만나다

우수상

-
워크넷은 나와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

2017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
목차

장려상

-
항상 고맙습니다, 워크넷

장려상

-
내일(來日)을 위한 내 일

장려상

-
희망, 자신감, 의지 그리고 워크넷

장려상

-
나에게 보증 수표가 되어준 워크넷

장려상

-
워크넷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까지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워크넷과 함께

취업정보가 전무했던 대학생

‘그냥 학교 다니다 보면, 어떻게든 때 돼서 내가 갈 직장 하나쯤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대학을 다녔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구사 가능한 외국어 한두 개쯤, 상장 한 두 개쯤은 가지고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고스펙자들이 넘쳐나는 마당에 그렇게 앞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4학년이 되면서 처음 뛰어든 인턴 시장 경쟁률은 최소 50:1~100:1에 육박했다. 20여 개 이상의 자기소개서를 쓰고 고배를 마셨고, 운 좋게 면접에 가면 준비가 덜 된 불안과 긴장으로 어쩔사리 잡은 기회를 놓치기 일쑤였다. 우여곡절 끝에 IT 회사의 체험형 인턴 6개월 자리를 추가합격으로 얻게 됐다.

워크넷을 통해 취업준비의 서두, 정보를 얻다

6개월 인턴 생활 중 처음 한 달은 뭘 듯이 기뻐다. 내 이름이 적힌 사원증과 자리가 있다는 자체로도 직장인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인턴 생활 중반으로 접어들수록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추가 합격으로 겨우 얻은 체험형 인턴 자리조차 수없이 많은 고배를 마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지를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인턴 계약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앞으로 효율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기로 마음먹었다.

1. 나는 경쟁자들과 달리 어학연수도, 교환학생도 다녀온 경험이 없고 구사 가능한 외국어가 전혀 없었기에 막연하게 취업시장에 뛰어들면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했다.
2.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나는 취업시장에서 그리 선호 받지 않는 인문학 단일전공자였기에, 경쟁자들이 움직이는 대로 가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일쑤였다.
3. 어렵사리 면접을 가도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자신감을 잃고 페이스를 놓쳐 아는 것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해 빈번히 떨어지곤 했다.

이 3가지를 종합해보니, 나에게는 기업에 대한 정보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광고에 나오는 기업뿐 아니라 업계 내에서 정평이 나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소위 말하는 히든챔피언, 우수 중견/중소기업을 공략하자는 전략을 세웠다.

인터넷 취업포털에 나와 있는 기업 외에도 숨은 강자들을 찾는데, 워크넷이 도움이 됐다. 특히 내가 자주 검색했던 부분은 ‘청년 친화 강소기업’과 ‘기업현장 탐방’이었다. 일반인들에게는 쉽사리 알려지지 않은 기업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나 혼자 좋은 원석을 발견하고 다듬는 기분이었다. 특히 자기소

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한데, 인터넷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업현장탐방’에서 세세한 기업정보를 얻고 또 직원 인터뷰란을 통해 회사의 분위기나 필요한 역량, 어떤 팀에서는 무슨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회사 전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을 선호한다는 내용은 취업 준비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었다.

정보력으로 결실을 얻다

워크넷 ‘청년친화 강소기업’, ‘기업현장탐방’을 통해서 알게 된 기업리스트가 생기니 나의 일상 또한 바빠졌다. 남들이 다 쓰는 회사뿐 아니라 숨은 강소기업, 히든챔피언까지 원서를 2~3배로 써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살을 많이 쏠수록 과녁에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지듯, 워크넷을 통해 알게 된 여러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 점점 서류가 통과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처음 인턴을 시작했을 때 20~25개 기업을 지원하면 서류가 통과되고 면접까지 가는 기업이 3~4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워크넷을 통해 여러 기업을 알게 되고 지원하다 보니 총 85개의 기업을 지원했고 그 중 1/3은 서류가 통과됐고 면접에 간 기업체만 해도 10여 군데가 넘는 성과를 얻었다.

면접장에만 들어가면 긴장하고 페이스를 놓치는 나 자신을 바꿔보고 싶어, 되도록 모든 면접에 참석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회사의 면접을 볼 때는 여전히 긴장됐지만, 면접을 많이 볼수록 대기실에서 긴장도 덜하고 면접관 앞에서 여유롭게 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면접관이 ‘우리 기업은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던데 어떻게 알게 됐나요?’,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본인이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라는 질문은 내게 점수 따기 유리한 질문이었다. 이미 워크넷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갔으니 말이다. 덕분에 나는 4학년 2학기를 다니던 중 첫 취업준비에서 2곳에서나 최종합격 문자를 받게 됐다.

마치며

4학년 2학기 때 취업 준비를 하며 내가 느낀 것은 하나다. 구직 시장은 무엇보다도 정보가 우선시 된 상태에서 준비해야 남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 점에서 워크넷의 ‘청년친화 장소 기업’, ‘기업현장 탐방’은 굉장히 유용한 콘텐츠였다.

처음 들어보는 기업, 나 자신도 잘 몰랐던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등록된 업체,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한 현장 탐방에 대한 콘텐츠를 접하면 어느덧 불안감은 ‘한번 지원해볼까?’라는 호기심으로 바뀐다. 이런 과정이 많아지면 취업에 성공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취업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전략의 시작은 믿을만한 정보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워크넷에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우수한 히든챔피언, 우량한 장소/중견 기업에 대한 발굴과 콘텐츠가 늘었으면 한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최우수상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2013년 10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년 전 가을입니다.

직업군인으로 22년을 근무하다가 계급정년으로 40대 중반에 퇴직을 앞두던 시절. 확정된 퇴직예정자의 삶은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마치 선고받은 사형수처럼.

동료와 후배들의 무시, 가족의 외면...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역할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좌절감은 저를 우울증에 빠트렸습니다.

전역예정군인을 위한 전직교육을 받으면서 내내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중 워크넷에 입사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워크넷은 당시 제게 유일한 희망이자 탈출구였습니다. 그만큼 공신력 있는 직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워크넷에 올라와있는 직장들이라면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진급에서 실패한 후 2,3년간을 워크넷을 검색해왔고, 회사에 대한 자산규모와 안정성 등 기업정보와 평가수준도 나와 있어서 각 회사들의 비전과 근무여건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색했던 직장의 조건은 ‘정규직’, 그리고 월 ‘250만원’. 두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처럼 사회경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특히, 군인 출신을 선호하는 직장은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회사경력도 없이 자존심만 강한 중년의 군인을 좋아하는 회사가 있을리 없지요.

제대군인이 지원할 수 있는 군무원 시험이 있었지만, 청춘을 군대에서만 보냈는데 평생 군대 주변에만 맴돌며 삶을 마감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군무원은 10년을 더 일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저는 20년 이상을 일할 수 있는 자격과 기술을 배우는 것이 낫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는 제 직장을 다시 판단하게 하는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제 적성이 영업이나 관리보다는 감성을 요구하는 서비스직이나 기술직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기준으로 다시 직장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띄는 직장이 보였습니다.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었습니다. 장례업계는 제 직업심리검사 결과에도 맞다고 나온 분야였기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워크넷에서 제시하는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을 공부한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원하는 직장에 입사 후 포부와 사업의 전망, 업무추진계획까지 세워서 제출했으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메일을 보내놓고는 마치 시험을 마친 수험생처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지방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단법인 000입니다. 면접 보러 이번 주에 오실 수 있나요?"

그 목소리는 제 오랜 양금 같은 것을 씻어내는 청량음료와도 같았습니다.

"네 오늘이라도 바로 가겠습니다."

대답하고는 버스에 택시를 갈아타고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공원묘원을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 사무실이 산 중턱 조용한 곳에 있었고 그것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면접은 미소가 따뜻하신 여자분 이사장님과 이사님이 보셨고, 저는 그저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통보!

군대에서 진급 실패 후 몇 년간을 패배자처럼 보냈던 제게 그 통보는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구렁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제2의 직장생활.

2년간의 사무직을 거쳐 지금은 비석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기술직으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늘 기술자를 꿈꾸던 제게 직장에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비석을 최신 기계로 제작하는 기술을 제게 가르쳐주기 위해 중국에 가서 CNC (컴퓨터 수치제어장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외출장의 기회도 주었고, 장비 프로그램 운용과 일러스트, 포토샵 등 컴퓨터 실력이 부족해 제작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계속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직장에 다니는 중인지 기술연수를 받고있는 중인지 구분이 안갈 때도 있습니다.

아직 직장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지만 드릴 하나 만질 줄 모르던 저를 국내에 몇 명 안 되는 고급 석재기술자로 키우기 위해 도와주고 기다리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재래식 비석뿐만 아니라 사진과 문양과 캘리그래피로 아름다운 추모비를 만드는 예술가, 석재 디자이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가 워크넷을 검색했을 때 월급과 정규직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젠 기술이라는 재산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 군생활의 실패로 칠흑 같은 터널을 걷고 있던 제게 드넓은 평야와도 같은 지금 이 직장으로 안내해준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로 제가 가야할 방향을 알려주고, 정확한 직업정보로 안전한 길로 유도해준 것이지요. 초조함과 불안감의 탈출구가 되어준 워크넷이 있었기에 지금의 은인 같은 직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취업률이 낮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을 일반화에 빠트리지 말고, 특별한 케이스로 만들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인연은 우연히 찾아온다기보다는 끊임없는 노력의 필연 끝에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인연을 워크넷을 통해 찾았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중장년 취업을 위해서는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기본이며, 자신의 경력을 인정해 줄만한 직장을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군 생활을 통해 강한 체력과 인내심, 조직에의 충성심을 갖추고 있었고, 특히 주말근무나 명절근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이 직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이든 명절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상을 당해 장지로 오는 분들이 있으면 근무를 해야 하는 이 곳 특성상 저 같은 사람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이지요.

사무직을 고집하기보다는 컴퓨터 기술과 장비가 연계된 기술직을 알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중장년에게는 청년에게 없는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력과 희생정신입니다.

청년이 갖지 못하는 오랜 경험으로 원숙한 통찰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4,50대의 가장이라는 위기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배수진이 됩니다.

20대는 엄두도 못내는 힘든 일을 50대는 해낼 수 있지요. 체력이 아닌 정신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5,60대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장년의 강점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또, 입사 초기에 다소 대우가 좋지 않더라도 일단 취업한 후에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로 직장을 선택하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입사 후 3년 만에 파격적인 월급인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직장의 배려로 행

운을 누리게 된 것이지만, 남보다 더 노력한다면 누구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워크넷 취업정보는 짧은 기간 검색하고 포기하면 안됩니다.

저는 퇴직을 준비하면서 2년 이상의 기간을 매일같이 워크넷과 함께 하면서 시시각각 탑재되는 취업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의 월급과 여건이 되는 직장이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검색조건을 다양하게 설정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는 순간부터 워크넷은 내 컴퓨터의 즐겨찾기, 내 폰의 바탕화면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대기업과 다르게 중소기업이나 법인의 채용은 특정한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고 수시로 채용이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퇴역군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제대군인 기관과 고용지원시설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워크넷 만큼 정확하고 알찬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혀있는 문을 오랫동안 쳐다 보느라 우리를 위해서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는 헬렌켈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4년 전의 저처럼 실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미 닫힌 문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빨리 다른 쪽의 열려있는 문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워크넷의 정확한 직업정보와 직업심리검사는 그'다른 문'을 찾는 등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제게 비전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직장. 그리고 이런 직장과의 인연을 만들어준 워크넷에 감사드립니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우수상

-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2015년 6월 30일 나의 39년 4개월간 샐러리맨 생활이 끝났다.

타기업에 비해 비교적 후한 퇴직금을 받아 당장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았고 두 자녀 공부도 끝나 재취업엔 별 관심이 없었다. 1976년 3월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 4년간 주경야독을 하며 야간 대학도 졸업했고 32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그리고 결혼, 4남매의 장남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두 아들도 장성해 서울에서 자리 잡고 있어 그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으니 퇴직 후 주어진 제2의 인생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활동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여유롭게 살아보자는 생각이 훨씬 강했다.

그러던 어느 모임에서 동년배의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보안설비 부품을 관리하는 부서에 일하는데 시프트제 일자리로 하루 4시간 정도 일

하고 4대 보험 혜택도 있고 사원복지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퇴직했으니 이제 일 하겠다 하지 마시고 이런 종류의 일자리라면 우리 같은 장년층에게 생활에 활력도 주고 또 급여도 받으니 생활에도 보탬이 되는 일자리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4시간 정도의 근무’ 라는 말에 재취업을 처음으로 생각해보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였으나 우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의 퇴직 후 활동을 시작했다. 담당자는 실업수당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었고 성실히 일하던 사람들도 퇴직 후 잘못 관리하면 긴장이 쉽게 풀려 생활리듬과 건강도 해치기 쉬우니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관련 공식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재취업 정보 취득 및 구직활동을 꾸준히 할 것을 권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워크넷 등록 및 활용방법을 몇몇 블로그를 방문하여 등록방법을 숙지 워크넷에 접속하여 ID를 등록하고 이력서를 작성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관심 있는 회사에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어보기도 했다. 실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한 형식적인 구직활동이었으나 사무직 40년 퇴직자를 고용하겠다는 연락 온 곳은 거의 없어 허탈하였고 그나마 보험회사나 카드회사 등에서 연락 왔으나 만약 재취업한다면 금융업종보다 오히려 단순 노무직을 희망하고 있어 성사되지 않았고 청년취업도 어렵지만 특히 장년층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퇴직교육 받을 때 강사들이 청년취업도 어려운데 퇴직자들이 재취업이 더욱 어려운 것은 취업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우니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사람인, 알바몬 등 취업관련 사이트를 십분 활용하고 가능하다면 친지나 지인을 통해 취업하는 것이 그나마 확률이 높으며 평소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취업이 어려울 것은 예상했지만 현실은 훨씬 심각했고 실업수당 8개월이 후딱 지나가고 명실상부 삼식이(?)가 되고 보니 ‘실업수당수령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추천한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스킬 훈련이나 국비직업훈련 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봤더라면 좋았을 걸, 8개월을 안이하게 보냈구나’ 하며 후회가 밀려왔다.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워크넷에 등록된 본인의 3개의 이력서 내용을 보다 충실하고 상세하게 수정해가며 채용정보란을 수시로 검색하고 관심 있는 직종의 기업을 짚해 놓으며 재취업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다. 워크넷의 강점으로 이력서와 관심 있는 직종을 등록해 놓으니 수시로 핸드폰 메시지로 관심기업의 채용공고를 알려줘 취업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켜 주었으나 실제로 관심 있는 회사에 연락해 보면 나이에서 우선 난색을 보였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직 퇴직자보다는 젊고 패기 있는 지원자를 뽑을 것이고 워크넷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니 우리 연령대의 장년층을 써 주는 곳은 주차관리, 아파트나 회사 경비직, 미화원 정도밖에 없었고 그나마 좀 괜찮은 곳은 경쟁이 치열했다. 새롭게 사회경험을 시작해보자는 생각으로 눈높이를 낮추고 워크넷에 올라온 채용정보를 보고 지원하여 약 1년 동안 종합병원에서 주차관리, 경비업무를 경험했고 연말엔 공공근로를 신청해 공원 환경정비 작업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의 재취업 경험을 경청해 보기도 했다.

3군의 일을 해보며 장년 재취업에 대한 현실적 깨달음이 있었고 이왕 하는 일이면 일과 보람을 함께 느끼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생각하여 다시 고용센터를 찾아가 구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상담하여 국비직업훈련으로 일반목공 훈련과정을 신청, 일반공구 사용법 및 경량목조 부스(Booth) 제작에 참여했고 훈련기간 중 수시로 워크넷을 검색하며 채용정보를 검색하던 중 금년 4월 “00공항 불법반입 수하물 분류 스티커 부착 업무 (중장년층 우대)”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다.

이 업무는 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의 여행객 수하물 검색업무를 보조하는 일로서 채용공고를 보는 순간 40년간 은행에서 대고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본인이 관세청 공무원과 협력하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직무로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여 지원하였다. 채용과정은 협력회사(용역회사)가 부산 강서구청의 지원을 받아 미니채용박람회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나는 면접에 응시 운 좋게도 취업이 확정되어 현재 5개월째 00세관 공무원 및 공항운영 관련 여러 협력회사 직원들과 함께 보람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년층의 재취업이 결코 쉽지 않으나 포기하지 않고 고용센터, 경총, 시청, 구청 등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재취업관련 중장년 희망센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보완해 가며, 알차고 광범위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워크넷에 수시로 접속하여 채용정보를 꾸준히 검색 시도해 보면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는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재취업 -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우수상

-



워크넷을 통해 평생 함께 하고픈 회사를 만나다

문자왔쑹 문자왔쑹

“가까운 센터로 방문하시어 취업지원을 받으세요”

2017년 4월 저는 집에서 취업알선기관의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2년간 다닌 회사가 경영악화로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퇴사 후 여러 취업사이트로 이력서를 수십통을 넣었지만 단 한건도 연락을 받지 못한 채 내 인생의 지금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뇌에 잠겨있던 순간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저는 고용노동부 취업알선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님은 가장 먼저 워크넷에 가입을 요청하셨고 희망직종, 연봉, 근무처, 근무환경,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을 물어 보셨습니다. 앞으로 취업성공까지 상담사님은 워크넷을 통해 제가 원하는 조건들에 최대한 근접한 회사들을 알선해 줄 것이라고 하였고 취업성공까지 다시 힘을 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즉시 워크넷에 가입하고 기본이력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였습니다. 그 후 사이

트를 보며 제가 원하는 조건들을 검색하여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워크넷을 처음 이용해 보면서 타 취업사이트와 취업지원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3가지가 다르다고 느꼈고 이제라도 워크넷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워크넷은 회사의 입장이 아닌 지원자의 입장에서 모집요강, 근무조건, 전형방법, 우대사항, 기업 홍보 존까지 지원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타 사이트를 이용하며 90%이상 급여는 “면접 후 협의“ 모집인원은 ”0명“으로 되어 있기 다반사였고 지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워크넷에는 임금조건에 모두 급여 또는 연봉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집인원과 고용형태, 소정근로시간 및 퇴직금정보까지 한 기업 모집란에의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실속 있는 정보들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취업알선기관 연계하여 인력자원을 풀가동하여 200% 워크넷을 활용하여 구직자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능력부족보다 정보부족인 측면도 꽤 크다는 것을 워크넷을 통해 취업을 하며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제가 회사를 검색하고 찾을 때는 보지 못했던 회사들을 상담사님이 어떻게 찾았는지 좋은 회사들을 꽤 많이 알선해주셨고 제가 지원하겠다고 하면 지원회사에 추천까지 항상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취업을 준비하며 막막한 순간이 참 많았는데 저를 위해 2~3명이 취업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전국 각 고용센터에서 기업을 관리하고 인증을 하고 있었고 인터뷰후기를 바로 볼 수 있어 믿고 지원 할 수 있었습니다.

워크넷과 저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 되었습니다 상담사님과 저는 정말 열심히 기업들을 찾았고 기본 이력서 외 입사하고픈 기업들은 각 기업을 분석하여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이력서를 쓰고 지원하기를 2달째, 상담사님께 한 기업을 알선 받았습니다. 저는 모집공고를 보고 임금과 회사위치 모집직종 등 모든 점들이 마음에 드는 회사여서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직무관련 자격증 2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했으나 “지원한다고 손해를 보는 일도 아니고 지원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밤을 새서 이력서를 썼고 직무관련 자격증 시험에 접수하여 공부를 그날로 시작했습니다.

서류 발표를 기다리며 워크넷으로 다른 회사를 검색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면접 전화를 받게 되었습

니다. 면접당일 15분 먼저 도착한 저는 사무실 빈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자유로움과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면서 “나도 이 회사의 구성원 중 한명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간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못하고 면접을 보러 다니며 나를 보여주려 애쓰고 긴장 속에서 살다보니 순간 제자신이 측은하게 생각되어 졌습니다. 면접은 1시간 정도 꽤 자세하고 진지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자격증이 없는데 지원한 이유를 물으셔서 모집직종 업무에 관련해서는 경력으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으며 자격증시험도 접수해놓은 상태라서 취득예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면접결과는 자격증 시험을 본 후 2차 면접을 보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합격통지는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2차 면접을 잘 보고 최종합격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상상하며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가져온 시험지로 가채점을 해보니 60점이상 합격인데 90점! 이걸 실수를 감안해도 100% 합격이었습니다. 다음날 긴장되고 떨리는 목소리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김원영 지원자라고 합니다. 자격증시험보고 2차 면접 보자고 하셔서 시험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라는 표현이면 적당할까요? 경력 있는 분으로 이미 채용을 해서 미안하다는 겁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네 이 회사와 저는 인연이 아닌가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속상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3주간 워크넷과 상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연봉을 낮추기도 했고 여러 곳에 면접을 보러 다니며 알바도 시작했습니다. 슬펐고 마음 아픈 날이 많았지만 하루하루 워크넷에 모바일로 들어가 회사를 알아보고 공고를 보며 참 열심히 지냈던 것 같습니다. 3주 후 자격증시험 최종결과가 나오는 날 따르릉!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000씨 되시나요? 채용담당자입니다. 구직중이시라면 2차 면접을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른 분을 이미 채용했지만 내년엔 채용계획을 앞당겨 채용할 의향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두 번째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하여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워크넷과 취업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제가 존경할 수 있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합격하였습니다. 지금은 회사 다니지 2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는 구직자에서 당당히 회사원이 되어 매일 아침 7시에 지하철을 타

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신청하여 목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구직기간동안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하고 취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워크넷'이라는 시스템과 인적자원의 연계와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는 구직활동을 하는 친구들과 동생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워크넷과 고용센터의 지원을받으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기공모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누군가에도 도움이 되는 사회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우수상

-



워크넷은 나와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

워크넷 고마워요!

2014년 12월 31일,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직장 동료들의 정년퇴임 환송을 끝으로 32년간 몸담았던 정든 직장의 정문을 나서는데 왜 이리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그리고, 발걸음은 왜 떨어지지 않는지, 배웅하는 직원들의 손 흔드는 모습에 함께 손을 들어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승용차 안에서 함께 정년퇴임 환송행사에 참석한 아내와 세 남매들이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인생의 반을 저희들 위해 애써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에 잠시 상념에 잠기며 우리 가족과 가정을 위해 나는 정말 열심히 산 것인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 삶은 없었나? 직장 동료들에게 부족하고 미안함은 없었는지? 등을 되 뇌이면서 미래 100세 시대를 나의 것으로

로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워 옴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 나의 좌우명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지 않은가? 준비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나이기에 세상이 말하는 인생 2막을 잠시 쉬어 가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하였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당을 신청한 후 안내에 따라 교육도 수강하면서 “워크넷 웹사이트”에 나의 이력 정보를 하나씩 채워가니 정말 열심히 인생 1막 직장생활을 한 것 같아 뿌듯하였지만 뭔가 밀려오는 회한에 백수의 삶도 되돌아보았다.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도서관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인문학 도서도 읽으며 틈틈이 “워크넷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워크넷)을 통해 구직의 문을 두드렸지만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아님 나의 이력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돌아오는 답이 없다 보니 워크넷에 등재된 이력서의 자기소개서를 계속 수정, 보완하는 작업 속에 세월은 무심한 듯 흘러만 갔다.

그렇게 백수가 된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집에서 멀지 않은 A 중소기업에서 면접전형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니 그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고, 그동안 준비한 면접 시 예상 질의 답변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혹여 채용이 안 될 것에 대비하여 면접 전일까지도 워크넷을 이용한 구직의 문을 계속 두드렸다.

약속한 면접 당일 정장차림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A 중소기업에 도착하여 면접을 보는데 전통적인 면접방식이 아닌 대화방식으로 편안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봉과 직책 등을 확정된 후 출근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담당 전무가 다음 기회에 같이하자며 좋은 뜻으로 그만 출근을 해 달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내게 무슨 문제 있어 그런가 곰곰 생각해 보니 퇴근을 칼같이 한 것이 화근을 만들었던 것이다. 중소기업은 모두가 힘을 합쳐 1인 다 역을 해야 하는데 내 일만 하고는 퇴근을 하니 누가 좋아할까? 나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생긴 일이라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함께 만들어 가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며 인생 2막 첫 직장을 씩씩하게 마무리 하였다.

또 다시 실업급여로 연명하는 백수의 길로 들어서니 허전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구직활동을 진행한 결과 집에서 거리가 있는 B 중소기업에 채용되면서 A 중소기업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로 회사 내 기숙사를 자청하며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여 늦은 퇴근까지 열심히 근무하였으나 가족경영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3개월 만에 스스로 퇴사하는 아픔을 맛보았다.

두 번의 퇴사가 나에게 준 교훈은 뭘까 다시 한 번 생각하니 채용하려는 기업정보를 상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무언가에 쫓기듯 근무지역, 기업규모 등에 상관없이 입사원서를 제출하고, 면접 연락이 오면 한 걸음에 약속한 후 면접을 보고 쉽게 입사를 결정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이다. 물론, 나의 성격이 강직하다 보니 공사가 분명해야 하고, 대기업의 기업경영 운영은 기본적으로 부서 간 업무역할과 책임소재가 분명한데 중소기업은 모든 것이 말로 시작하여 말로 끝나고, 결과에 따른 책임도 없고, 경영자의 말 한 마디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현상 등의 그 모든 것이 이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으로 다가와 쉽게 퇴사를 한 것이라 생각했다.

이젠 중소기업이 갖는 속성을 더욱 이해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 즉 인적자원, 업무능력, 자금조달과 운용, 업무처리방법, 위기대응능력 등을 그들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경영 방식으로 적용하여 함께 만들어 간다는 자세로 임하자고 다짐하며 다시 “워크넷 웹사이트” 구직의 문을 두드렸다.

이렇게 두드리는 과정에서 “워크넷 웹사이트”의 맞춤정보를 2개 설정하였는데 하나는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과 함께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종과 직무를 설정하면서, 키워드도 필요한 직무에 해당 단어를 선택하여 설정하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기숙사 생활이 가능한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고 직종과 직무도 감내 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로 인한 혼란을 제거함은 물론 입사지원에 걸리는 시간도 최소화하여 여유 시간에 구직 기업의 상세정보를 공부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였다. 이는 입사에 따른 실패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였으며, 한편으론 동일 직종 채용공고도 유심히 살피면서 하나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구직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입사지원을 한 후엔 동 시스템의 입사지원 내역을 확인하면서 이력서 열람여부를 확인 후 연락이 없으면 삭제하고 다른 기업에 입사 지원하는 형태로 구직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내가 짚한 기업의 구직여부도 확인하는 등 구직활동 노력을 전 방위적으로 전개하였다.

이후 세 번째 직장에 입사하기까지 약 100개 기업의 문을 두드린 것 같고, 그 중 50여 기업 면접을 보면서 입사 제의를 거절하기도 하고, 연봉 문제 등으로 탈락되기도 하는 과정 속에 드디어 2015년 11월 그동안 경험했던 제조업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식품음료 제조회사의 C 중소기업으로부터 면접을 통해 3개월 수습과정을 거친 후 정식으로 채용하겠다는 경영자의 뜻에 따라 공장장 직책으로 입사하였다.

그렇게 3개월 공장장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현 기업경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고서로 만들어 제시한 후 경영자와 대화를 통해 하나씩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가족

경영에 참여한 장인, 사촌 등을 모두 퇴사시킨 가운데 수평적 프로세스 조직을 만들면서 해당 우수 인력을 공개모집(워크넷)으로 확보하고, 조직 내 우수인재를 승진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강소기업의 틀을 갖추어 가고 있고 둘째, 각 조직별 업무 시스템화에 필요한 중소기업용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각종 정보생성을 통해 경영관리 체계가 확보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부서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한 주 1회 주간회의 실시와 P(Plan) - D(Do) - C(Check) - A(Action) 사이클의 업무처리방식을 도입하여 계획과 조정, 통제라는 경영관리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넷째, 생산 및 품질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불량품 최소화, 제안제도(아이디어 등) 강화 및 작업방법 표준화, 작업자 의식변화 교육, 무재해(무사고) 활동, 품질안전의 날 제정 운영 및 설비 예방정비를 통한 생산 안정화 등을 구현하여 기업 손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섯째,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기숙사 운영, 직원 생일잔치 상설화, 직원 심신단련 야유회 정례화, 장애인의 날 축하잔치 및 직원 가족 초청 송년의 밤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역동적 기업 모습을 보여줘 삶의 행복함과 자긍심을 전 직원과 함께 만든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종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현재 많은 변모를 거듭하면서 강소기업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으나, 한 가지 어려움으로 다가 오는 것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용에 따라 일정 인원의 장애인(3급 지체 및 지적 장애 등급)을 고용하여 비장애인과 함께 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이다. 지적능력은 있으나 언어소통이 안 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언어소통은 잘 되나 숫자나 문자 쓰기가 안 되는 직원이 있고, 보청기를 끼고 생활하는 청각장애를 가진 직원, 자신의 몸을 자학하는 자폐증을 지닌 직원 등 다양한 장애발달 직원들과 함께 식품 안전을 충족시키면서 제품을 완전하게 생산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인내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그 자체인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행동과 심리를 먼저 이해하면서 회사와 가정과 직원이 합심하여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 가는 과정 중에 개인별 특성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에 따라 언어 습득능력이 뛰어난 직원은 영어 학습을 통해 외국어 능력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으며, 컴퓨터에 관심 있는 직원은 사무자동화 관련 교육과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유인하여 정보처리 능력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에 관심 있는 직원에게는 지게차 운전면허 훈련을 통한 운전자격 확보로 다기능화 능력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맞춤형 인재발굴과 양성에 열심인데 이 또한 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함께하는 우리 장애인 직원들이 온전하게 사회 생활하는데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보람찬 인생 2막 직장생활을 기쁘게 영위해 가고 있다.

그 결과 경영자는 내가 신체적 결함으로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연봉도 중소기업 기업 규모치고는 높은(6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의 예우를 보여주며 평생직장으로서의 느낌을 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정식직원 신분으로 공장장 직무를 현재 열정적으로 임하게 만든 이 모든 것은 고용노동부의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인 “워크넷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워크넷) 운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니 감사할 따름이다.

재취업이 주는 행복...

재취업은 본인 같이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이야기인 것 같다. 그것이 어떤 직종이든 말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창의성보다는 보수적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어 능동적이기 보다는 시키는 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직장 생활 중에 원칙중심 경영, 고객중심 경영, 현장중심 경영, 창의중심 경영 즉 4대 경영 철학을 마음에 새기고 역동적 자세로 학문적 이론과 실무적 지식을 끊임없이 확보하고자 대학에서는 경영관리기술을, 대학원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수함은 물론 인생 1막 직장생활 중 수 많은 실무(관리자)교육과정을 학습하였고, 직장 내 논문 공모에 2회 수상하는 역량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 출장(미국, 프랑스 등)과 견학 해외연수(일본 대장성, 미국 실리콘 밸리) 및 도서 출간을 통해 사회적 진출 기반 역량을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업무적 역량은 각종 표창장을 수상하는 것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국무총리 표창장, 국가보훈처장관 표창장, 사장 표창장 4회, 대전시 교육감 표창장 2회 그리고 6시그마 혁신활동 챔피언벨트 인증 등 기업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며 혁신적인 자세로 직무 핵심역량을 끊임없이 확보한 이력을 눈여겨 본 식품음료 제조회사의 C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발탁되어 현재까지 기업경영을 혁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행복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로지 “워크넷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워크넷)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나와 같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입사하기를 원하는 성격인 사람에게는 정말 훌륭한 시스템인 것이다. 누구의 입김이 아니라, 누군가의 낙하산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만으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으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 아내와 세 남매들도 남편과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

고 있으니 이 보다 더 행복할 순 없지 않은가?

나의 심신을 잘 다스려 이 행복이 영원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해 보면서 올해 입학한 평생학습 기관인 국립 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식품영양학 전공도 즐겁게 학습하고, 졸업 후에는 고객만족 제품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우리의 전통음료가 우리는 물론 전 세계인이 애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도 새겨본다.

끝마치면서...

아내와 세 남매들과 함께한 인생 1막 32년의 직장생활을 후회 없이 마무리했음에도 아직도 몸과 맘이 청춘임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인생 2막의 직장생활을 23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몸에 기운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인생 1막 시점의 연도별 인구분포가 피라미드 형태였다면 인생 2막 현 시점의 연도별 인구분포는 역 피라미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60세 이상 신 노년층에게는 기회인 것이다. 적어도 시대가 요구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핵심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면 말이다. 시대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의 심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창의력을 끊임없이 발휘하여 세대 간 어울림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구직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일과 공부를 통해 평생 학습하고 공헌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워크넷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은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한다. 이 시스템처럼 투명한 구직·구인이 어디 있는가? 인생 100세, 120세의 아름답고 멋진 날을 꿈꾸는 신 노년층 세대에게 희망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번 “인터넷 취업성공수기” 공모 기회를 만들어 준 워크넷에 감사를 전하며 글을 마친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장려상



항상 감사합니다,
워크넷

20대 초반 암 진단을 받고 그동안 해오던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선 건강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수술 후 회복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술 경과가 좋아 우려했던 상황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그렇게 고대했던 퇴원 생활이었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할 줄만 알았던 20대의 절반을 투병 생활로 낭비하자 막상 건강해져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대학원 진학을 하거나 취업에 성공하여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겨우 학교를 졸업한 저는 한참 뒤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직활동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병원에 있을 때가 마음 편했다며 쓸데 없는 생각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신세 한탄이나 하며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쉬웠던 인터넷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 때 워크넷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에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장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검색해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는지 지역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직종이 있었지만 일반사무원으로 지원해보는 것이 가장 수월할 것 같았습니다. 우대사항 역시 채용공고에 나와 있어서 컴퓨터 사무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에 더 유리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다루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고 이내 정보처리기능사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채용공고를 자주 검색하다보니 근무 조건도 더 신경 써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직이지만 보다 전문적인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업상담사라는 직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색하기 이 전에는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웬지 이 일을 하게 되면 저와 같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지역 채용공고를 보니 직업상담사를 채용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당장 지원할 수는 없지만 자격을 갖추 꼭 도전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구직활동 방법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워크넷에서 직업심리검사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검사하며 결과를 배운 대로 해석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직업가치관 검사를 실시하여 아직까지 몸과 마음의 여유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알고 근무시간이 길거나 야간근무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해 저의 흥미코드가 관습형과 사회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업 상담과 흥미코드가 일치하여 안심하고 더욱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저 합격을 위한 암기식 공부라 아니라 나중에 직업상담 일을 하게 되면서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부하였습니다. 마침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그동안 취득했던 사무 자격증과 경력사항을 정리하여 이력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작성하면 수정도 쉽고 채용공고가 올라왔을 때 클릭 한번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직종별로 여러 개의 이력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자기소개서 양식도 갖추어져있어 내용만 알차게 채우면 나만의 이력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구직등록도 함께 해놓자 지원하지 않아도 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신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희망한 업무는 ‘직업상담’이었기 때문에 일반사무원으로 지원 요청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사는 지역에서 직업상담사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경력자 우대인 공고였지만 그동안 직업정보를 찾으며 쌓아왔던 노하우와 자격증 공부를 하며 알게 된 정보를 십분 발휘

하였습니다. 채용공고에서 경력을 제외한 다른 우대 사항을 채울 수 있도록 자격증 정보와 직업관련 경력을 업데이트하고 업무에 대한 정보도 워크넷에서 수집한 대로 잘 정리하여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직업 상담에 대한 업무를 찾아보니 상담은 물론 행정적인 업무도 무시할 수 없어 컴퓨터 사무능력 역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직업 상담에 대한 업무를 잘 파악하고 경력직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6년차 직업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 일도 어떻게 찾을지 몰라 헤맸던 제가 이제는 한 해 백여 명의 구직자와 함께 취업성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워크넷을 보며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워크넷을 알리고 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끝났지만 워크넷과 저의 인연은 근무 중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워크넷처럼 저 역시 워크넷과 함께 하며 꾸준히 직무역량을 높이고 많은 구직자와 워크넷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來日)을 위한 내 일

클릭! 한 번으로 인연이 이루어지는 곳, 워크넷.

딸깍~ 딸깍~ 거리며 마우스를 열심히 움직인다. 입사지원이라는 클릭 한 번에 수많은 인연들이 이어진다. 여기는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일자리 정보가 모여 있는 곳, ‘워크넷’이다. 마치 백화점과 같다.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

고객이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는 것처럼 일자리도 내 마음대로 찾을 수 있다. 지역, 근무형태, 직종과 같이 큰 주제로 검색하는 것은 당연하고 여러 조건들을 내 구직 조건에 맞추어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다. 맞춤형 채용인데 이게 참 편리하다.

워크넷으로 검색하다가 ‘깜짝!’ 놀랄 때도 있다. 우리 집 가까운 곳의 회사에서 구인 공고를 하는 것이다. 슈퍼를 가면서 항상 지나 다녔던 길인데 거기서 사람 구하는 줄도 몰랐다. 워크넷이라는 것이 할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랍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할 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 막막한 것이 많다. 일은 해야 되겠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동안 열심히 배운 것 같은데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말은 쉬운데 행동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구직활동을 해보니 못하고 안 되고 모르는 것들이 참 많다. 특히 나의 경우에는 구인정보는 어디서 보는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사정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워크넷을 알고 난 뒤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조건을 설정하고 마우스로 딸깍! 거리며 입사 지원을 하면 된다. 또 워크넷은 구인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취업 그리고 취업을 위한 모든 것들이 모여 있었다.

워크넷에 접속하는 순간, 취직의 반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내리실 역은 워크넷, 워크넷입니다.

취직이라는 것이 바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사를 하거나, 갑작스런 실직을 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곳으로부터 연락이 없는 경우이다. 나의 경우도 역시 그렇다. 심지어 지원 서류는 통과했는데 면접을 보거나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였다.

실직 상태에서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1년을 훌쩍 넘기기도 하였다. 그러다 운 좋게 취업을 하여도 수술까지 필요한 병환이 발병하여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였으며, 교통사고가 나서 장기간 입원 및 후유증으로 그만두기도 하였다.

이렇게 그만두는 이유는 다양해도 실직 상태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근무 할 때는 퇴근 시간까지 달팽이 속도로 가는데, 실직 상태일 때 시간은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흘러간다.

하지만 그 보다 실직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무서운 점은 사람이 무기력해 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는 다짐으로 구직활동을 하여도 하루 이틀 지나고, 그러다가 한 달 ~ 두 달이 지나가고 1년, 그리고 내일까지.

어찌 보면 연속된 실패에서 얻게 되는 한 개인의 당연한 기분이지만 포기를 하는 순간, 취업은 영원히 사라진다. 그러나 나는 다행스럽게도 워크넷을 알게 되었고 활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워크넷이 있는 줄도 몰랐다. 공공로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보니 취업희망자는 워크넷을 참고 하라는 간판을 본 것이다. ‘취업희망?’이라는 궁금함에 버스에서 내려 검색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워크넷과 나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고민을 말해봐, 워크넷.

워크넷에 접속을 해보니 완전 신세계였다. 그 전에는 알음알음 일자리나 정보지를 참고하여 구직활동을 하였는데 참 미련한 짓이었다. 워크넷은 단순히 채용정보만 있는 웹사이트가 아니다.

예컨대 나의 경우에는 웹사이트의 메뉴 중에서도 직업진로 쪽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직업심리검사를 통하여 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나도 몰랐던 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직업교육의 하나인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교육을 수료하였다.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까지 해 주는 것이다.

또한 직업진로 메뉴에서 취업에 대한 고민을 묻고 답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고민들도 참고 해 보면서 그 고민들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인상이 깊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워크넷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모바일 워크넷.

경쟁사회가 되어서 그런지 구직정보를 빨리 파악하는 것도 빠른 취업의 지름길이기도 한다. 세상에 많은 직장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직종에서 언제 채용공고가 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리 정보를 알 수가 있다면 준비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막상 열심히 채용정보를 알아보다가 잠시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공고 기간이 안타깝게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채용인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채용 기간을 미리 공고하지만 소규모로 채용할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채용공고를 발표 하자마자 다음 날 채용이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바일 워크넷을 활용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시간 날 때마다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터넷보다 모바일이 더 편할 때가 많다. 딱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워크넷에서는 다른 정보 제공처에서 오는 구인정보도 워크넷 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넷 하나만 활용해도 많은 웹사이트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워크넷은 워크넷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워크넷의 진짜 장점이다.

내가 워크넷으로 직업상담사 분들과 채용박람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내가 원하는 정보만 설정하면 그 정보에 맞추어 워크넷의 직업상담사 분들께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제공해 준다. 그 정보에 맞추어 나는 지원만 하면 된다.

채용박람회를 참가하는 편도 좋았다. 한 장소에 구인, 구직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꺼번에 좋은 인연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박람회 정보 또한 워크넷에서 알림공지를 공고하거나 직업상담사 분들께서 직접 알려주신다.

내가 하는 것은 내 입맛에 맞게 제공해 주는 정보를 선택만 하면 된다. 워크넷이 없다면 일일이 찾아

보고 번거롭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워크넷과 함께한다면 참 편리해진다. 워크넷 그 자체로도 활용도가 많지만 워크넷은 그 이상의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

나의 희망등대, 워크넷.

시대가 발전하면서 항해하는 배에는 최신 정보화 장치를 설치하여 목표좌표로 잘 찾아간다고 한다. 하지만 가끔씩 기계가 작동이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 망망대해에서 무작정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배를 항해하는 선원들은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등대의 불빛을 보며 나아간다고 한다. 우리 또한 인생이라는 큰 세월 속에서 스스로 항해사가 되어 워크넷이라는 희망등대를 보며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면 좋겠다.

결국 편리한 최신 기계나 사회 제도가 있어도 그 것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바로 자신이다. 또 인생이라는 긴 항해 속에서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워크넷 뿐만 아니라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많다. 하지만 워크넷처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인증을 거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별로 없다.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오히려 그 약점을 악용하는 못된 사람들도 많다.

더 나아가서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워크넷과 비교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전혀 없다.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아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위하여 함께하는 웹사이트이다.

바로 이 것이 내가 글을 쓴 이유이다. 단 한 분이라도 내 글을 보고 워크넷을 활용하여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내일(來日)을 위한 내 일을 위해서 워크넷과 함께 하자.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장려상



희망, 자신감, 의지 그리고 워크넷

27년간 직장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하다.

나는 1961년생으로 전형적인 베이붐세대다.

경제 팽창기인 1987년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무탈하게 27년간 직장생활을 하였고, 2014년 4월 만 53세에 명예퇴직했다.

나의 실력이나 능력 보다는 운이 좋아 지점장까지 하고 퇴직하였다.

직장 있을 때는 관리직, 영업직으로 일을 했고, 기술직이나 전문분야에서는 근무하지 않았다. 그리고 직장 다닐 때, 자격증 획득, 기술 습득 등 퇴직후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퇴직하는 날, 만감이 교차하였지만,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뜻밖에 담담하였다.

길고 지루한 구직활동 - 나이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거 아냐?

퇴직 이후 2016년 3월까지 약 2년간은 집안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취업은 하지 않고 퇴직금과 아내의 급여로 생활하다, 2016년 3월 퇴직한 회사가 마련한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되었다.

45일간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에서 주로 배운 내용은

- 1) 고용주, 인사담당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기 소개서 작성 방법
- 2) 구직 요령 (워크넷, 리쿠르트, 사람인HR 등 구직 사이트, 중장년취업 사이트 이용방법)
- 3) 중소기업 환경과 직장에서의 중장년의 역할 등

재취업 교육이 끝난 4월부터 워크넷, 장년 일자리 희망넷, 벼룩시장, 교차로를 검색하며 구인광고를 검색했다.

워크넷에 올라온 자료가 많아 워크넷 위주로 검색을 하였고, 장년을 주로 뽑는 장년일자리 희망넷, 교차로, 벼룩지장은 보조 수단으로 검색하였다.

내가 원한 것은 영업직이었지만, 고용주들이 50세 넘는 사람은 영업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지원을 하였지만 면접을 본 적조차 없었다.

그 외, 공장 경비직, 학원 운전직, 배달 겸 영업직, 물류직, 식자재 소분직, 단순 포장직, 실험용 쥐 사육사 등 1주일에 평균 1~2개사에 구직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면접까지 가 본 것은 학원 운전직 한차례 뿐이었다. 면접은 잘 본적 같았는데 연락은 오지 않았다. 급여가 높지 않는 단순 노무직들이었음에도 취업이 어려웠다. 면접조차 보기 힘들어 “이 나이에는 취업이 불가능한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구직활동 5개월 만에 온 전화

그러던 중 2016년 9월 30일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전화가 왔다.

“워크넷에 등록된 이력서(자기소개서)를 보고 전화했다. 여기는 식자재를 제조, 유통하는 조그만 회

사인데 우리와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것이었다.

재취업 교육 받을 때 취업에 자기소개서(이력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교수님의 말이 새삼 떠올랐다.

당시 여러 차례 작성하고, 수정하고, 코칭 받아 작성한 이력서가 효과를 발휘한 것 같았다.

회사에는 3명이 근무했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사실 급여는 적었지만, 식자재 무역도 하고 있어 배울 것이 많아 계속 근무하려 했으나,

회사가 변두리 외곽에 위치하고 대중교통 수단이 매우 열악해 출퇴근에 왕복 4시간 정도 걸렸다.

시간을 줄이려면 중고차라도 한 대 사야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자가용을 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3주 정도 근무하고 2016년 10월 퇴사하였다.

다시 구직활동 – 검색, 이력서 제출 연속 반복

퇴사 이후 다시 워크넷 검색을 시작했고, 벼룩*장, 교*로 까지 검색해가며 이력서를 반복해서 넣었다. 물론 면접 볼 기회조차 오지 않았지만 습관처럼 계속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희망버스, 일자리 박람회 등에도 참석하였지만 결과는 없었다.

그렇게 아쉬운 2016년이 저물었고, 2017년 1월 중순 그날도 다른 날과 같이 워크넷을 검색하고 있었는데, 집 인근 신축 오피스텔 관리인 1명을 구인하는 광고를 봤다. 급여도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높은 수준 이었다. (단가는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근무시간이 길음)

“이렇게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내게 오겠어?”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습관처럼 이력서를 제출했다. 전화로 다음날 면접을 보자는 연락이 왔다.

9개월간의 구직활동 드디어 결실을 맺다

다행히 30분간의 면접을 거쳐 바로 채용이 되었다. 지루하고 힘들었던 9개월에 비해 채용과정은 허무하리만큼 너무 쉽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2017년 1월 23일 채용되어 현재까지 잘 근무하고 있다. 전혀 관리인

경험이 없지만 바로바로 물어보고, 배우고, 검색해 보고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구직활동에서 느낀점이 있다면

1) 워크넷의 다양한 기능과 장점을 알고 활용하자

- 워크넷은 가장 많은 구인광고를 보여준다 왜 ? 구인광고 내는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 워크넷의 구인광고는 신뢰도가 높다. 불법,유혹 등 광보는 배제
- 워크넷 검색시 다양한 옵션을 활용하면 지역,분야,나이 등 나만의 맞춤 검색을 할 수 있다.
- ※ 워크넷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남미에서도 벤치마킹 한다고 함

2) 워크넷 등록 이력서(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

- 구체적 직무 경험, 주요 실적 기재, 자신의 장점을 잘 표현해 주는 문구 고민 후 작성
- 희망급여는 현재 동종 구인광고에서 제시하는 수준을 넘지 않는 게 좋다.

3) 자격이 된다면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활용 강추

- 자격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가 기준 (고용센터 문의해봐야 함)
- 고용주에 1년간 9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취업 확률이 확 올라감
- 다양한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4) 시간 있을 때 자격증 1~2개 정도는 취득해 두자

- 경비자격증, 지게차 자격증, 주택관리사(장시간 소요), 화물운송자격증
- 나 자신도 시간 날 때 퇴직을 대비해 각종 교육을 받고 있다.
- 이제는 단순 기능 위주 교육을 받고 있다. 전기기능사도 좋다.

5) 희망을 잃지 말자

-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나라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다양한 일자리가 충분히 있다. 다만 근로조건인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공간적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힘들

뿐이다.

-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준을 조금만 낮춰 찾는다면 자신의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 그리고 자신감을 갖는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면접 보러 물류창고에 갔었는데, 의외로 신체적으로 약해보이는 젊은 여자들과 노인들도 생각 보다 많이 일하고 있었다.

6) 취업 후 긍정적인 직업관을 갖는다면 고용주에게 환영받을 것이다.

- 일부 사람들은 (임금을) “주는 만큼 만 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 괜찮은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용주가 “돈(임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맺음말

개인적으로는 워크넷 덕분에 취업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직상태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지만 확고하다면 취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으시기 바라며,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에게 보증 수표가 되어준 워크넷

세월이 변천하고 발전을 이룩하면서 붙게되는 단어가 있다면 내 생각에는 “발전”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산업화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에 이르면서 점차적으로 시대의 기능이 발전하고 동시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인터넷이 존재하였지만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1990년대 후반 들어서 대폭적으로 보급되어 누구에게나 더 편하고 더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지난날의 세월을 돌이켜 보며 깨닫게 된다. 그와 맞물려 취업사이트 또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적성에 맞고 교통이 편리하고 근무환경이 좋은 곳에 취업을 하여 일하기를 열망한다. 그 두 가지 조건을 알아보려 사람들은 각종 취업사이트에서 그 조건들을 찾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조건에 근접한 곳에 입사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된다. 지금 현재 현존하는 수많은 취업사이트가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확고한 희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장애는 결코 장애가 될 수 없다는 크나큰 진리를 알게 해 준 고용노동부 워크넷 취업사이트가 큰 보배가 아닐 수

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현재 지체장애 4급을 판정받은 상태다. 몸이 심하게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다리를 어려서부터 약간 절고 있다. 중학교 시절 내가 가진 장애에 설상가상으로 폐렴까지 앓게 되어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7년, 그때 당시에 나는 인터넷을 모를 때였다. 그래서 ‘벼*시장’이나 ‘*차로’ 등의 지역신문을 보고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다. 여러 가지 직종의 일이 있었지만 나는 어딜 가나 내가 가진 장애로 인하여 퇴짜를 맞기 일쑤였고 무슨 일 인가를 하게 되면 적응을 하지 못하여 얼마 안가서 그만두게 되었다.

6년 동안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보지 못했던 나는 2003년도 어느 날부터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여러 취업 사이트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사이트인 워크넷에 접속을 하게 되었다. 우선 워크넷이라는 취업사이트가 온라인상에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서울인력은행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1990년대 후반에 나도 그곳에서 일자리를 알아보았던 때가 있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서울인력은행을 통해 오프라인상으로 이루어졌던 구인, 구직업무는 서서히 온라인상에 뿌리를 내려 워크넷으로 통합되었던 것을 기억해 보게 된다. 난생처음으로 워크넷에 접속하여 여러 직종을 검색하던 중 내 눈에 들어왔던 것은 노인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8개월 단기직의 ‘노인돌보미’를 구하고 있다는 구인광고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한 번 지원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그 곳의 채용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게 되었다.

“여보세요.” “네, 노인요양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노인돌보미를 구하시신다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제가 장애인인데 지원이 가능합니까?” “네, 특별히 상관은 없는데 많이 불편하신가요?” “아뇨, 그냥 다리를 약간 저는 수준입니다.” “그럼, 면접 보러 한번 와보시지요.”

그래서 나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그 노인요양원에 면접을 보고자 방문을 하게 되었다. 채용담당자와 면접을 보게 되었고 채용담당자는 내게 물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부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돌보는 일이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시켜만 주신다면 힘이 들더라도 감수하고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돌아 가시구요. 제가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채용담당자와 그렇게 면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 노인요양원에서 내게 연락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10일정도가 지났을까? 내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네, 000씨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저번에 면접 보셨던 노인요양원인데요. 내일부터 근무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럼 저를 채용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9시까지 요양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채용확정 소식을 듣고 그토록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았다. 내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지만 나를 채용해 준 것에 대해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 다음날부터 그 곳에서 전임자에게 업무요령을 지시받고 조금씩, 조금씩 업무를 파악하며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내가 그곳에 처음 와서 하는 일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키는 일과 노인들의 침상을 깨끗이 청소하며 침대에 침대보를 새것으로 깔아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고, 대걸레로 병동바닥을 닦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나면 내 마음도 닦는 것 같아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요양보호사라는 생각보다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니 어떠한 일이 생기건 무난히 해낼 수 있었던 기억이 있다. 그 곳에서 그렇게 8개월 동안 일을 하며 중간에 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는 노인요양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또 다시 워크넷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니 내가 갈 수 있는 곳의 범위가 더욱 폭 넓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 곳에서 면접을 보는데 모든 채용담당자들이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장애를 딛고 8개월간 이어왔던 나의 경력을 높이 샀던 기억이 있다. 나는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경력직으로 대우를 받고 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되었고 전에 일하던 직장보다 더욱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8년째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내가 일했던 경험을 잘 살려 노인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며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워크넷은 그렇게 지체장애

자인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해줬고 앞으로 내가 가야할 길을 안내해 주었다. 무엇보다 워크넷에 감사한 것은 내가 장애인이라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라는 것이다. 워크넷이 없었다면 현재 노인복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나는 없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절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며 정체성을 비관했던 나에게 꿈을 심어주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준 것은 누가 뭐래도 나는 ‘워크넷’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워크넷을 통하여 얻은 은혜는 내 평생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같이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워크넷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알려주어 그들도 용기를 얻고 자신의 일을 갖고 더 밝은 미래로 힘차게 발돋움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말 한마디보다 어디선가 나를 믿고 채용해 줄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나의 보증수표가 되어준 워크넷이 오늘날까지 보다 더 큰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나는 오늘도 나의 경험과 관련된 어떠한 일들이 구인광고에 올라와 있나? 스마트폰을 통해 워크넷에 접속해 본다. 모든 이의 손 안에 있는 영원한 취업길잡이 워크넷이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노인들과 일손을 놓고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노인들에게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즐거움을 청년들에게는 일을 통한 밝은 미래를 안겨주고 청년실업률을 낮추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취업의 기쁨을 누리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고 그 길에 들어섰을 때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히 가져 본다. 일하는 모습이 있어 아름다운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나는 이 순간 꿈꿔본다.



워크넷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까지

올 해 준 정부기관에 입사한지 반년이 조금 넘는 낭랑 26세 입니다. 아르바이트하랴 취업 준비하랴 밤잠을 설치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치여 치열하게 살던 게 엇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제 성격이 워낙 밝고 쾌활한 편이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 문턱들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턱들보다 취업이라는 문턱은 제게 험난하고 또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학비를 보태기 위해, 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취업준비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먼저 남들보다 평탄하지 않을 길을 걷고 계신 이 분들께 제가 감히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틈틈히 취업준비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공공기관에 입사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 번의 도전

에 실패하고, 낙담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워크넷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결국 이렇게 수기를 쓸 만큼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느 취업준비생들처럼 처음에는 부푼 꿈을 안고 지원한 기업들이 자기소개서에서부터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임공정’이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던 제가 “내가 정말 쓸모가 있는 사람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의 자기소개서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문장이 매끄럽지 못해서, 또는 나만의 스토리가 없어서 떨어진 줄 알았지요. 그래서 열심히 문장을 다듬고 화려한 자기소개서로 다시 기업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낙담과 실의에 빠져 취업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니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제가 무얼 잘하는지, 또 어떤 것에 소질이 있는지 잘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운 좋게 자기소개서 전형에 합격해도 최종관문인 면접에서 저의 소질과 능력, 그리고 흥미를 기업과 연결시켜 어필하지 못하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전공을 떠나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 하고 좋아하는 것이 뭐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환경 상 비싼 취업컨설팅을 받을 수도 없었고, 남들이 다 받는 이미지메이킹 수업, 또 유명한 면접학원을 다닐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터넷과 학교 취업지원센터에 손품과 발품을 팔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워크넷에서는 다양한 취업정보가 있었고, 진로상담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직업심리검사’라는 콘텐츠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의 소질과 흥미를 전문적인 관점에서 알려주고, 이를 토대로 알맞은 직업군을 알려주는 직업심리검사는 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검사였기 때문이지요. 직업심리검사를 진행하니 우선 저의 성향과 소질을 수치와 통계로 알기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직업군들 중 어느 직업군이 나와 잘 맞는지, 더불어 세부적으로 어느 직무를 잘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 대해 아주 잘 아는 가상의 선생님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여러 문항에 답을 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었고, 검사결과를 통해 제가 무얼 잘하는지 알게 되니 잃었던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니 저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했고, 경쟁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기하게

도 저는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직업심리검사결과를 활용하여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취업준비에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사기업에서 공기업으로 목표기업부터 다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한 목표기업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쓴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접에서도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할 곳에서 무엇에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부러워하는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회초년생이 되었고, 집에서는 자랑스러운 딸이자 학교에서는 취업준비생들의 멘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취업 준비생 분들께 반드시 비싼 돈을 내고 받는 자기소개서 컨설팅이, 면접수업이 좋지 않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발품을 팔아 찾아보면 워크넷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가정환경이 어려운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워크넷과 함께 도전하다보면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법을 스스로 배우게 될 것 입니다. 또, 워크넷의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진짜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업에, 그리고 좀 더 나아가 꿈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지친 취업 준비생 분들께 아브라함링컨이 했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실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도하지 않아 기회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워크넷고객센터 **1577-7114** | 이메일 workmaster@keis.or.kr
평일 09:00-18:00 (주말 · 공휴일 휴무)